한지민·남주혁 "영화 '조제', 첨가물 없는 사랑 이야기"

日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리메이크
드라마 '눈이 부시게' 호흡 이후 두 번째 만남
'페르소나' 김종관 감독 신작, 내달 10일 개봉

한지민 남주혁 주연의 감성 로맨스 '조제'가 겨울 극장가를 찾아온다.

17일 영화 '조제'의 제작보고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영화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잊을 수 없는 이름 조제(한지민)와 영석(남주혁)이 함께한 가장 빛나는 순간을 그린다.

2004년 개봉한 일본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최악의 하루', '더 테이블', 넷플릭스 오리지널 '페르소나' 등을 만든 김종관 감독의 신작이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를 통해 호흡을 맞춘 한지민, 남주혁의 두 번째 만남으로 기대를 모은다.

남주혁은 이날 행사에서 제작 VCR를 본 후 감정에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지민은 처음 경험하는 사랑의 감정에 설렘과 불안을 함께 느끼는 조제 역을 맡아 세밀한 감정 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남주혁은 "눈빛이 주는 힘이 대단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의 시작부터 '조제'로 느껴졌다"고 추어올렸다.

한지민은 "첨가물이 없는 민낯 같은 사랑이야기다"고 소개했다.

조제 캐릭터에 대해서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집 안에 머무르며 책을 통해 세상을 접하고 다양한 상상을 품기도 한다"며 "때론 생각지 못한 취향과 이야기를 들려주고, 때론 너무나 당연한 것을 신기해하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매력을 지닌다. 평범하지 않은 낯선 인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이어 "조제는 다리가 불편한 인물이지만 그런 부분이 부각되기보다 조제와 영석이의 사랑을 감정으로만 표현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남주혁은 조제에게 다가가는 영석 역을 맡아 풋풋한 매력부터 짙은 감성까지 한층 성숙한 면모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지민은 "남주혁 배우의 따뜻한 면이 '영석'과 많이 닮았다. 현장에 익숙해지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마워했다.

남주혁은 "김종관 감독님이 그리는 조제가 너무 궁금했고 시나리오를 읽고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고 떠올렸다.

김 감독은 원작과는 다른 기대 포인트를 짚었다

그는 "원작 소설과 영화가 가진 인간애는 가져가되 다른 길을 찾아 우리만의 조제를 만들고자 고민했다"며 "" 현실적인 공간에서 '조제'와 '영석'의 감정 변화를 포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작의) 재료들을 가지고 안에는 다른 많은 이야기가 있다. 공간과 조제의 감정에 더 집중하는 영화로 추억과 같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지민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한국적인 특색도 가미했다"며 "조제 원작처럼 사랑, 겨울에 생각나는 영화로 남았으면 한다"고 바랐다.

12월10일 개봉.

사유리, 정자 기증받아 득남…'자발적 비혼모'

"자는게 무서울 정도로 행복"…SNS에 '축하'·'응원' 댓글 쏟아져

방송인 사유리(후지타 사유리)가 정자 기증을 통해 아기를 출산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KBS에 따르면 사유리는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 보관돼 있던 이름 모를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에 성공, 지난 4일 아들을 출산했다.

1979년생, 41세인 사유리는 지난해 10월 생리불순으로 한국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난소 나이가 48세라는 진단을 받았다.

평소 출산에 대해 마음이 컸던 사유리는 KBS와 통화에서 "자연임신이 어려운 데다 지금 당장 시험관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고 했다"며 "눈앞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아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급하게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사유리는 고심 끝에 자발적 비혼모가 될 것을 선택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혼 여성에게 정자 기증을 해주는 병원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본국인 일본으로 가 정자 기증을 통한 임신에 성공했다.

사유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애가 옆에 없을까봐 불안하다"며 "행복해서 이게 꿈이었으면 어떻하나 생각해서 자는 게 무섭다"고 행복한 마음을 표현했다.

아울러 "어떤 사람은 (정자를) 기증받았다는 걸 말하지 말라고 했다. 아이가 차별 받는다고"라며 "난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싶은데, 거짓말하고 있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유리 SNS에는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멋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이랑 항상 행복해라' 등 응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일본 국적의 사유리는 지난

2007년 방송된 KBS 2TV '미녀들의 수다'를 통해 안방극장에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유튜브 채널 '사유리 TV'를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송가인 "외모 자신감 없어 '미스트롯' 예선 기대 안했다"

KBS 1TV '아침마당' 출연

가수 송가인이 '아침마당'에서 '미스트롯'에서의 높은 성적을 기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가인은 17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해 "그 당시 자존감이 낮아서 나가자마자 예선 탈락할 줄 알았다. 그래서 '실수만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나갔다"고 돌이켰다.

이어 "요즘 비주얼이나 외모를 많이 보시니까 자신감이 없었다. 외모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노래만 열심히 하자는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가인이 받아든 성적표는 영예의 1위였다. 그는 지난해 방송된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에서 1위를 차지해 '트로트 대세'로 부상했다.

송가인은 "요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국인데도 많이 찾아주신다. 감사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기를 실감할 때'를 묻는 말에 "오빠의 잔소리가 줄어들었을 때"라고 답하며 "가족 회비를 걷을 때 내가 돈을 못 낼 때가 많아 오빠 잔소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내가 오빠들에게 용돈을 준다. 지금은 말투도 다정해지고 내 안부를 자주 묻는다"고 말해 달라진 위상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아침마당'의 '화요초대석' 코너에는 송가인을 비롯해 '미스트롯' 출신 가수 홍자, 숙행이 출연했다.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뮤비 6억뷰 돌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 뮤직비디오가 6억뷰를 돌파했다.

17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가 이날 0시1분께 6억 건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 5억뷰를 기록한 데 이어 약 27일 만에 1억뷰를 더하게 됐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DNA',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Feat. Halsey)', 'FAKE LOVE', 'IDOL', 'MIC Drop' 리믹스, '불타오르네(FIRE)', '피땀 눈물', '쩔어'에 이어 통산 9번째 6억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지난 8월21일 공개된 '다이너마이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활력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방탄소년단만의 '힐링송'이다.

밝고 신나는 디스코 팝 장르의 곡으로 뮤직비디오에서는 다채로운 색감을 활용한 배경과 레트로 콘셉트의 소품과 의상이 돋보인다.

특히 뮤직비디오는 공개 직후 동시 접속자 수 300만명을 넘기며 유튜브 프리미어 시청 기록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만에 1억100만 조회수를 기록해 유튜브 뮤직비디오 사상 '24시간 최다 조회수' 신기록을 공인받기도 했다.

또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9월5일자)에 진입과 동시에 정상을 차지했다.

최신 차트(11월14일자)에서도 이름을 올리며 10주 넘도록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총 26편의 억 단위 조회수 뮤직비디오를 갖고 있다.

"10월 트로트 스트리밍, 전년 동기 대비 3.38배 증가"

'미스 트롯' 방송 전 비교 4.25배 상승

지니 2020년 10월 TOP 200 (트로트 장르)

순위	곡명	앨범명	장르	아티스트명
17	이제 나만 믿어요	내일은 미스터트롯 우승자 특전곡	트로트	임영웅
30	오래된 노래	사랑의 콜센타 Part19	트로트	임영웅
50	만개 (Prod. 신지후)	우리家	트로트	김호중
57	어느 60대 노부부이야기	내일은 미스터트롯 트롯 에이드 베스트	트로트	임영웅
83	바램	내일은 미스터트롯 예선곡 베스트	트로트	임영웅
124	우산이 없어요	우리家	트로트	김호중
125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사랑의 콜센타 Part21	트로트	임영웅
128	테스형!	아홉 이야기	트로트	나훈아
138	보라빛 엽서	내일은 미스터트롯 레전드 미션 베스트	트로트	임영웅
157	나보다 더 사랑해요	나보다 더 사랑해요	트로트	김호중
160	이제 나만 믿어요 (Piano by 조영수)	이제 나만 믿어요	트로트	임영웅
168	니가 왜 거기서 나와 (Narr. 고은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트로트	영탁
173	찐이야	내일은 미스터트롯 결승전 베스트	트로트	영탁
182	계단말고 엘리베이터	계단말고 엘리베이터	트로트	임영웅
194	퇴근길	우리家	트로트	김호중
195	나보다 더 사랑해요	우리家	트로트	김호중
197	백화 (白花) (Narration. 손숙)	우리家	트로트	김호중

트로트 열풍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 17일 지니(대표 조훈) 서비스 빅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0월 트로트 장르의 스트리밍 이용은 전년 동기(2019년 10월) 대비 3.38배 증가했다.

트로트 열풍의 시발점이 된 '미스 트롯' 방송 전인 2018년 10월과 비교해서는 4.25배 상승했다.

지니뮤직 관계자는 "트로트의 인기가 지속되는 요인을 볼 때 중·장년층에게는 과거의 추억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고, 젊은 세대에는 트로트 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이 신선함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트로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한 것은 지니 차트 톱200을 살펴도 확인 가능하다. 알 수 있다. 10월 톱 200을 보면,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17위)를 비롯해 총 트로트 17곡이 상위권인 톱 200위 안에 진출했다.

전년 동기 차트 톱200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2019년 10월 차트 톱200에서는 홍진영의 '오늘 밤에'(154위)만 200위권에 들었다.

지니뮤직 관계자는 "대중의 니즈에 따라 트로트 신곡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미스터트롯' 서울 콘서트, 무기한 연기

거리두기 1.5단계 여파

TV조선 '미스터트롯' 톱6 콘서트의 2주차 서울 공연이 코로나19의 확산세로 무기한 연기됐다.

17일 콘서트 제작사 쇼플레이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확산세로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되면서 해당일부터 22일까지 예정된 '내일은 미스터트롯' 서울 콘서트를 미루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고령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기준, 감염재생산지수 등이 나빠지고 있다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했다.

1.5단계로 격상되면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체육관을 비롯한 공연장에서의 모든 대중콘서트 및 행사는 100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이번 '미스터트롯' 톱6 서울 콘서트는 다시 연기를 결정했다.

종 잡을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애초 지난 4월 첫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차례 연기했고 8월 처음 열었다.

특히 지난 12일 시작된 서울 공연은 자리 띄어 앉기 등으로 전체적인 관람객 수를 줄이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왔다.

쇼플레이 측은 "계속되는 연기와 취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트롯' 콘서트를 기다려주신 관객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지난 8월 서울 공연부터 부산, 광주, 11월 서울 1주차 공연까지 총 11만 명의 관객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고,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서울 공연을 연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마마무 '악플러' 벌금형…"추가 고소 진행"

그룹 '마마무'의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RBW는 지난 16일 팬카페에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글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킴스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다.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돼 처벌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면서 "현재 민·형사 고소, 고발 진행 중인 모든 사례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를 검토 및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